



# “1분? 얼른 짐 실어”… 당황스런 제주 관문

제주국제공항 ‘1분 주정차 단속’ 시행 첫날

도민·관광객 대부분 제도 시행 조차 몰라 당황  
“시간 너무 짧다” 불만… 제주시 “3층 게이트 이용”

“1분 만에? 아이고 어떡해. 짐 얼른  
실어!”

1일 오전 9시쯤 제주국제공항 도  
착 1번 게이트에서 렌터카에 짐을  
싣던 신모(60)씨 부부의 손이 바빠  
졌다.

제주공항 도착층 일부 구간에서  
1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1분 단속’ 제도가 이날  
부터 본격 시행됐기 때문이다.

1분 단속 제도는 공항 내 버스정  
류장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들로 인한 교통 혼  
잡과 이용객 안전사고 위험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단속 구간은 1층 1번~5번 게이트  
구간 내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  
소방차전용구역 등이다. 1번 게이  
트 앞 횡단보도를 기점으로 단속  
구간이 시작되며, 횡단보도 이전  
구간에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5분  
이내 주·정차가 가능하다.

단속은 매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단속 카메라를 활용  
해 이뤄진다. 1분 이상 주·정차 적  
발 시 일반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  
이상의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  
과된다.

1분 단속 제도 시행 첫날은 평일  
오전인 만큼 현장에서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만난  
관광객들은 모두 “1분은 너무 짧다”며 불만을 드러냈고, 관광객은  
물론 도민들조차도 해당 제도가 시  
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부천시에서 제주를 찾은  
신씨는 “제주가 안 그래도 바자지  
요금이다 뭐다 해서 원성이 자자한  
데 1분은 너무 족박한 것 아니냐”  
며 “정책을 더 포용적으로 실시하  
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업무차 방문한 한모(84)씨와 봉모(69)씨는 “이런 제도  
를 시행할 거면 안내 직원들을 배  
치하고 ‘이런 제도 있으니 유의하  
셔라’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면 기분  
도 안 나쁘고 좋을 것 같다”며 “그  
냥 시행해놓고 안내가 없으니 제주  
도 인식만 나빠질 것 같다”고 지적  
했다.

강원도 춘천시에서 온 김모(20대)  
씨는 “짧고 건강한 사람은  
괜찮아도 어르신이나 아이들에게 1  
분은 힘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고향 제주를



제주국제공항 ‘1분 단속’ 제도 시행 첫날인 1일 오전 9시쯤 시민들이 공항 도착 1번 게이트 앞에서 차량에 짐을 싣고 있다.

방문했다는 고모(25)씨도 “어른들  
도 있는데 1분은 너무 하다. 택시 하  
자 장소를 따로 만들어주던지 대안  
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3층 출발게이트에서 차량을  
기다리던 도민 김모(31)씨는 “제도  
가 시행되는지도 몰랐는데 원래 출  
발 게이트가 편해서 이곳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다”며 “1분은 너무 짧  
아서 앞으로도 출발층을 이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버스정류장 앞  
에 주정차된 차량들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고, 버스기사와 이용객

민원이 많아 제도를 시행하게 됐  
다”며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소  
방차전용구역을 제외한 구간에서  
는 현재와 동일한 5분 단속유예시  
간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도착층이 혼잡할 경우 3층 출  
발게이트에서 탑승하길 당부드리  
고 교통약자의 경우 3층에 교통약  
자 탑승 구간이 마련돼 있다”며 “법  
적으로 장애인 승하차 행위는 면제  
규정이 있어 도착층에서 주·정차  
단속에 걸리더라도 확인 후 면제  
처리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 “디지털 신호체계로 도심 차량소통 개선”

자치경찰단, 도령로·노령로 6.1km 구간 분석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신호체계  
를 통한 제주시 도심에서의 교통  
소통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속도 개선은 물론 통행시간과  
지체시간 감축 등 당초보다 9%가  
량 운행시간이 단축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교차로와 디  
지털트윈 기반 교통분석시뮬레이  
션(VISSIM)을 활용해 도령로와  
노령로 구간 6.1km의 신호체계를

개선한 결과, 교통 소통이 크게 향  
상됐다고 1일 밝혔다.

개선 구간은 도령로(7호광장~노  
령오거리), 노령로(노령오거리~무  
수천사거리)로 제주시내와 평화로  
를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이자 대표  
적인 혼잡구간이다.

자치경찰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와 협업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신호체계를 집중적으로  
개선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 스마트교차로  
를

뿐만 아니라 디지털트윈 기반 가상  
현실 교통분석시뮬레이션을 활용  
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 도로 상황  
과 동일한 가상환경에 적용해 사전  
에 문제점을 검증하고 최적의 신호  
운영안을 도출했다. 현장 적용 과  
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효  
율성을 극대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도로교통공단 제주지  
부의 효과 분석 결과, 도령로와 노  
령로 모두 통행속도 향상은 물론  
지체시간 단축, 통행시간 감소 등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평균속도는 개선 전 20.2km/h에  
서 22.0km/h로 9.0% 증가했고, 통행  
시간은 개선 전 18분 46초에서 17

분 1초로 9.4%(1분45초) 감소했다.  
지체시간도 10분 24초에서 9분 25  
초로 9.6%(59초) 단축됐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차량운행비  
용 13억4000만원, 시간비용 62억  
2600만원, 환경비용 1억3600만원  
등 총 77억2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  
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1·2  
차 개선사업까지 포함하면 연간 누  
적 절감효과는 299억원에 달한다.  
1차 사업은 연삼로 우편집중국~수  
선화아파트 구간이며, 2차 사업은  
중앙로 제주대 입구~남문사거리  
및 연삼로 신광사거리~삼양초소  
구간에서 이뤄졌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도,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  
명품가방에 귀금속 등 쏟아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9명을 대상으  
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일 밝  
혔다.

» 사진

도 본청과 행정시 세무공무원 10  
명으로 구성된 합동 가택수색 단속  
조는 지난 11월 20일부터 4일간 제  
주시 권역과 서귀포시 권역으로 나  
눠 체납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포  
함한 배우자 주소지 등 실거주지를  
수색했다.

대상자는 장기간 지방세를 납부하  
지 않으면서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등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체납자들  
이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가방, 귀금  
속, 건축용 공구, 갑골 선과기 등  
47점을 압류했고, 체납자 소유 자  
동차 2대에는 족쇄를 채워 운행을  
정지시켰다. 체납자 1명은 자동차

강제 점유 중 체납액 1100만원을  
즉시 납부했으며, 체납자 2명은 체  
납액 3100만원을 12월 말까지 납부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압류된 건축용 공구와 갑골  
선과기는 생계유지 용도의 재산임  
을 고려해 사용·수의 허가 신청서  
를 받아 사용을 허가했다. 나머지  
압류 물품은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  
을 거쳐 공매 방식으로 매각해 체  
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19일 고  
액 체납자 164명의 명단을 공개했  
고, 도·행정시 체납차량 합동 단속  
을 통해 163대의 체납 차량 번호판  
을 영치했다. 또한 3000만원 이상  
체납자 91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  
청했고, 명단이 공개된 146명은 관  
세청에 수입 물품 압류를 위탁해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오소법기자 sobom@ihalla.com



고액체납자 주거지 수색에 나선 공무원들이 찾아낸 고가 물건들을 살펴보고 있다.

## 도, 심야 노동 환경·근무 실태 조사 착수

### 새벽배송 사망사고 관련

접검할 것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심야 노동 과정에서  
젊은 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며 “노동 사각지대  
를 지방정부가 어떻게 보듬어야 할  
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  
영훈 지사는 이날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12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  
에서 심야 노동 환경, 근무 실태,  
사업장 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심야 노동 과정에서  
젊은 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며 “노동 사각지대  
를 지방정부가 어떻게 보듬어야 할  
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심야 노동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  
사를 실시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했다.

이상민기자

## 써니트묘목분양

### ★ 만감류

- 써니트 - 한라봉 2년 - 카라 2년
-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맷나봉

### ‘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호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  
에서도 써니트 점순을 불법 채취해서 자가묘목, 고점, 점순  
나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사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시키, 레드한라봉, 흉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 아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작발시 농가나 유통업체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유통 조치 현황 ·농가 : 42농가 ·업체 : 3개 업체

한라종묘

종사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

## 감귤 신품종 분양 2026년 공급분 품종안내

### 만감류

우리향, 달코미, 맷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라향, 한라봉,  
아나마스, 레몬, 탐나는봉

### 온주

궁천, 하례조생, 고림, 오하라베니

농장 임대만료로 특별 분양

유라, 레드향, 카라향

3년생 | 본당 10,000원 | 100% 이식묘입니다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큰도로변)

종사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 강정종묘 종남농장



제18-서귀포-2019-20-03

- 국립종자원에 생산, 판매신고가 된 믿을 수 있는 공식업체
- 국내육성 품종통상실시 계약완료
- 다양한 년수 포트묘 보유중

### 등록품종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카라향, 레드향,  
하귤, 유라조생, 레몬,

### 신품종

달코미, 우리향, 미래향,  
설향, 맷나봉, 레드스타,  
하례조생, 원터프린스,

## 감귤묘목·포트묘목 분양

### ※ 감귤보급품종(1~3년생)

-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라봉 ● 궁천
- 유라조생
- 오하라베니와세
- 금귤 ● 하귤(아마나스) 외  
다수 품종보유



### ※ 국내육성품종(1~3년생)